

생로병사하는 연기법칙의 상징

물

물은 물론 자연수를 말하지 않, 네가지의 위대한 존재, 즉 땅, 물, 불, 바람 가운데 하나로서 가장 활발하게 전유하고 순환하는 원소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의 흐름은 연기에서의 인과관계의 연쇄에 비유하고 있다.

상용아할경에서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차츰 우량한 계곡의 물이 되고, 호수를 이루 어 다시 강물로 변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이 우리의 무명의 빗방울을 조건으로 탐진치의 잘못된 경향이라는 계곡이 생겨나서 불질과 정심의 호수를 오염시키며 갈래와 취학의 강

물을 통해 생로병사의 고행에 흘러든다고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무명이란 오염된 물이 결국 생로병사라는 고통의 바다를 만들어낸다는 심층생태적인 기본적인 진리를 잘 대변한다. 뿐만아니라 동일한 경전에서 연기법칙인 진리에 대한 믿음의 빗방울을 연유로 즐거움과 청정함의 계곡을 따

부처님의 지구 사랑



진 재 성 13

바다로 이끈다는 실천생태학의 기본적인 명제를 제공하는 것



물의 흐름은 '인물은 유전한다'는 말 처럼 인과관계의 진리를 상징한다.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수행승들이여, 너희들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유전하고 운화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으로 비탄해하고 울부짖으며 흘린 눈물이 더욱 많아서 사대양의 물에 비할 바가 아니다."

수많은 겁을 지나면서 우리가 흘린 눈물이 빗방울이 되고 빗방울이 모여 계곡의 물이 되고, 계곡의 물이 되고, 지류가 되고, 다시 작은 못이 되고, 큰 못이 되고, 강이 되고, 강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어 천류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한번도 자신의 눈물이 아니었던 한방울의 물이라도 있었을까? 우리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고 바다는 생류를 잉태하여 물의 생태계를 전개시킨 것이다. 자연의 물과 인간의 물은 일체이기 때문이다.

오염된 물 '무명'...청정수는 열반의 바다에 비유

이다. 이와 같이 물에 비유되는 연기의 원리는 세간적인 생생 연기를 분석하는 심층생태학과 출세간적인 해탈연기를 실천하는 실천생태학의 기본적 이념을 제공한다. 물은 물 자체로서 언제나 진리를 상징한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만물은 유전한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비유가 아닌 생태계로서의 자연의 물은 다른 위대한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실재로는 연기소생으로서 무상하고 괴로운 특징을 지

났다. 이 세상에서 생명체의 출현은, 과학적으로 바다에서의 유기물의 생성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한다. 불교의 기세인 본경에서는 생명이 광음천(光音天)에서의 생존을 버리고 이 세계에 출현한 때에 어둠에 둘러싸인 물만이 존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물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의 중생의 생로병사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모태속의 태아가 어

마음의 모습을 캠퍼스에 옮겨 담아 불우한 이웃을 돕는 봉사 활동으로 펼쳐낼 수 있다면 더 할나위없이 수승한 불발실천이 될 것이다.

대구자비의 전화(회장 재원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모든 불교행사가 봉행되는 법회장에서 불자들은 네 가지 큰 서원을 하고 있다. △중생을 다 건지겠다 △번뇌를 다 끊겠다 △법문을 다 배우겠다 △불도를 다 이루겠다 하는 서원이 그것이다. 그러나 본래의 간절한 뜻이 배제된 채 형식적이고 관념적으로 불려지고 있지는 않나 한 번쯤 자성해 볼 일이다.

모든 불보살들은 한가지 이상의 서원을 세우

금주의 주제

서원갯기

불자라면 지녀야 할 삶의 목표

'부처님과 약속' 최선다해 실천해야

고 있다.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아 주겠다는 관세음보살을 비롯 아미타불의 48원 약사여래불의 12원등 서원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간절한 서원을 세운 만큼 불자들이 반드시 서원 지녀 신행해야 할 것이다.

서원은 희망이요, 삶의 목표이다. 이기적 욕망의 표현이 아니라 원을 세우고 서원을 성취해 배움겠다는 의지와 절제의 표현이다.

서원이라 하면 '특별한 것' 또는 '특별한 사람의 몫'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다. 스님이나 포교의 현장에서 전법활동을 하는 포교사들 특별한 계층만이 갖는 고유한 영역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원은 일부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승속에 관계없이 불법에 귀의한 불자들은 누구나 지녀야 하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깨달음의 사회화성금

| | |
|-------------|-----------|
| ▲연수원 | 3백3십1만4천원 |
| ▲조계사 | 14만3천460원 |
| ▲종로 소림사 | 1백만원 |
| ▲성북구 불정사 | 2십만원 |
| ▲이금령 권영준 수현 | 5만원 |
| ▲익령의 스님(2인) | 1천1백만원 |
| ▲익령의 불자 | 3백만원 |

(4월18일~5월 16일)
*성금모금 계좌번호
농협053-01-22778
국민은행023-01-0533-563
예금주: 불교중앙교연

'차문화' 대전지

5월25일 차의 날을 맞아 현대불교가 다채로운 차문화 대전지를 마련합니다. 그윽한 차향기로 건강과 맑은 불심을 가꾸는 이 잔치에 불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차의 날 기념강좌(1)
 - 주제: 한국불교와 차문화
 - 강사: 선혜스님(전통불교문화연구원장)
 - 일시: 24일 오후 6시30분
 - 장소: 현대불교신문사 지하 녹수청산
- ▲차의 날 기념강좌(2)
 - 주제: 차 예절
 - 강사: 김승희(차생활교육원장)
 - 일시: 26일 오후 6시30분
 - 장소: 현대불교신문사 지하 녹수청산

강좌·다구 전시·차발 기행
24~28일, 녹수청산·쌍계사



◇ 선혜스님 (전통불교문화연구원장)
◇ 김승희씨 (차생활문화원장)

- ▲다구 전시판매 및 시음회
 - 일시: 24일~26일(오전 10시부터)
 - 장소: 녹수청산
 - 유령 다구제작인의 다구가 차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생산가로 보급됩니다.
- ▲차발 기행
 - 일시: 27일~28일(1박2일)
 - 장소: 지리산 쌍계사 일대
 - 회비: 4만원(현대불교 구독자는 3만5천원)
 - 출발: 27일 오후 현대불교신문사
 - 참가자 전원에게는 현대불교 1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737-8881, 722-4162)
중로구 건지동 110-33번지

현대불교신문사

신행수첩

지친심에 마음의 평안을 불교발전, 직장인 법회

실새없이 업무에 바쁜 직장인들은 쌓인 피로를 녹일 고유한 휴식이 필요하다.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윤희환)은 생활에 지친 직장인들이 잠시나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생을 영위케 하기위한 '직장인을 위한 법회'를 마련했다.

신문로 2가 연구원법당에 무

기안으로 매일 점심시간마다 개방되는 이 생활참선 법회에는 매주 목요일 12시30분~50분간 연구원장 김용정교수(동국대)의 반야심경 강의도 계속되어 선(禪)과 교(敎)를 함께 하는 좋은 공부방이 될 것이다. (02)736-6202.

갯바위 수많은 전설 들다 신행연, 거조암 등 참배

우리의 불교문화 속에 깊은 참 뜻을 일일히 살피고 살아숨

어린이에 민족의 뿌리·궁지 심어

'동쪽나라' 국토순례단 백두산서 단군제

미래의 주인공 어린이들에게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단군의 자손이라는 긍지를 심어주기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 어린이 잡지 <동쪽나라(발행인 김형준)> 국토순례단은 오는 8월12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방문, 연변에 사는 5백여명의 어린이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8월15일 백두산에서 단군제를 봉행한다.

공복 50주년 공식행사로는 불교계 유일의 행사인 <동쪽나라> 순례단의 이번 순례는 중국 연변에서 연극 '단군왕검(극단 동쪽나라)'을 공연하고 연변어린이가 무단의 공연 등 '한겨레 어린이 잔치'가 펼쳐진다. 이어 백두산을 도보등정, 천지에서 '단군제'를 올린다.

이에 앞서 순례단은 7월15일~17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채화식 겸 수련대회를 갖는다. 시인 고은씨가 안내하는 <동쪽나라> 백두산 순례단은 국민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1백명을 선발하며 6월10일 접수 마감한다. (02)263-1387



신심과 원광발명의 제자인 의현대사가 돌아와 내리머리를 위하여 세운 미륵보살이린 전설이

부사로 꽃피울 불심모아 자비의전화 기금마련전

우리를 마음속의 부처될 성품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

쉬는 불법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매일1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불교문화기행을 실시하는 불교신행연구원(원장 김현준)은 오는 27일부터 28일 양일간에 걸쳐 대구 갯바위 거조암 제2석굴암으로 단사를 떠난다. 이번 단사는 갯바위에 얽힌 수많은 신행담을 비롯 1백8매등 수행을 통해 심신을 다질수 있다. (02)587-6613

뜨거운 불심 온누리 밝혀 전국청년불자 등반대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사랑 환혼 꿈 그 래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러나 이 모두를 가지고 있는 '불

심'이 최고의 미(美)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정포교원(원장 유우스님)이 전국 불자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불교중흥과 민족중흥의 서원을 다지기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덕유산에서 '전국 청년 불자 등반대회'를 마련한다.

천도재와 캠퍼사이자, 공동체 놀이도 뜻깊은 행사이지만 청년불자들의 뜨거운 불심은 온 누리가 부처님 세상임을 환하게 밝힐 것이다. (02)737-0853

생활속의 불교 26

뿌린 대로 거두는 마음밭 농사

뿌린 대로 거두고 지은 대로 받는다. 인과의 법칙엔 결코 예외가 없다. 그것은 불변의 철칙이다. 3x3=9인 것처럼.

지은 것은 낱알이 기록된다. 뿌린 것은 낱알이 싹이 튼다. 마치 내 속에 거대한 컴퓨터가 있어서 거기에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이 하나도 빠짐 없이 기록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풀려나 오는 것과 같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름이야 뭐라하든 무의식의 창고는 용량이 무한대이다.

내가 기록하고 내가 받고,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고..... 어김없이 그렇게 된다면 어디에다 빌고 어디 가서 구하고, 누구의 탓을 하겠는가. 오로지 내 탓이요, 내 책임일 뿐이다.



일체는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받는다. 나는 입법자요 집행자이다. 생각을 굴러 설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 결과를 내가 받는다. 따라서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고로 인생문제에 대한 해답은 자기 안에 있다. 밖에서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남의 탓, 주변환경 탓처럼 보이는 것은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이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시간·공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이다.

복을 주는 것도 자기로, 화를 주는 것도 자기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자기로, 회개하는 것도 자기다. 복 많이 받고 싶거든 자기 자신에게 복을 많이 지어라. 내 안에 길이 있고 내 안에 답이 있으니 내 마음 밭에다 씨를 뿌려라. 밖에 뿌리면 결코 뿌린 대로 거둘 수 없다.

불법공부도 마찬가지이다. 스스로 가르치고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행복 받는 것이다. 스승은 내 안에 있다. 내가 스승이다.

협찬 : 심경회, 심단회, 심대회, 심우회, 심정회